

한국가족의 문제에 대한 성평등적 시각의 소고

김 양 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가족의 문제를 성평등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가족규범, 가족구조, 가사노동의 분담문제, 가족내 여성의 지위, 가족법의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내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가장장적인 규범이라는 장애요소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가족안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가 재생산되는 심리 기제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의 일환으로 공평성이론과 상대적 결핍이론의 적용을 제안한다. 이 두가지 이론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의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낮은 지위와 열망수준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가족의 해'이다. 유엔이 '세계가족의 해'를 선포한 목적은 사회변화가 날로 가속화함에 따라 가족공동체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통하여 구성원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면서 다양성도 인정하는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유엔이 내건 슬로건인 '사회의 가장 작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직인 가정에서 민주주의를 형성하자'(Building the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와, 가정 생활 속에서 부부간, 부모-자녀간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구축하지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에서 투명하게 나타나 있다.

한국정부도 보건사회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가족의 해' 기념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족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민간단체들도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다.

여성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한 독립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필자는 울들어 국내 각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가족의 해' 기념 행사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이유는 혹시나 급변하는 사회가치에 따른 불안정과 인간소의 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가족이 중요하니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전통적인 방향으로의 회귀를 강화하거나, 사회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전반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하고 문제를 가족에 귀결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문제에 대한 과거의 접근은 남녀간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규범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족문제 연구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유엔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먼저 성평등적 시각에서 한국 가족문제를 재조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성평등 시각에서 한국 가족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가족안에서의 여성문제를 짚어내는 시도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오늘날 한국 가족의 여성의 지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전통규범,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가족내 여성의 낮은 지위가 재생산되도록 하는 심리기제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제안하고, 가족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가족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족내 여성문제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

그동안 여성운동가는 물론이고 여성문제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족과 관련되는 현상은 곤란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운동이 우리가 '사적'인 것 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현상이 공적이며 정치적인 것이라고 재인식을 하게 하는데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서조차도 얼마전까지 가정은 운동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사적인 것으로 분리된 채 남아 있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운동이 여성들로 하여금 공적인 사회에서 교육권, 참정권, 경제활동권 등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하였지만 그에 비하여 가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뒤졌으며 덜 성공적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 및 고용기회의 평등화, 임금체계의 남녀차별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

한 투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는 원칙에 부합된다(Andre, 1981).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직업세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참여했을 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해방운동에 자신을 동일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기만 하다면, 반대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가족내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은 그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신봉하기조차하는 원칙에 상반되는 움직임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에 상반되며,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에 위기의식을 줄 수도 있다.

가정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순조롭지 못한 또 다른 요인은 대안제시가 취약하다는 것과 운동자체의 동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Andre(1981)가 지적한 바 있다.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여성의 사회참여율, 임금 등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운동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비해 가정에서는 임금상승이나 지위상승의 통로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기껏해야 여성의 집안일에 대한 존중을 받아내면 그만일 뿐이기 때문에 운동의 유인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운동에서 뿐 아니라 학문적 연구에서도 가족에 대한 성평등 시각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였으며 주로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한국가족의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①가족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보고 전체사회구조와 가족이라는 집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②가족내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자는 주로 가족사회학자들에 의한 연구인데 이들은 가족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며 가족과 사회를 지나치게 양분화시킨 개념들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가족과 경제체제와의 관계, 가족과 사회정책 및 사회불평등 구조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였다.

가족내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학자 및 가족사회학자, 심리학자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부부관계에서 역할분담체계 및 권력구조는 어떠한가,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갈등요인은 어떠한가 등등이다.

이상과 같은 접근들은 우리사회에서 오랜동안 가족의 문제를 사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여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제외해 왔던 사실을 생각할 때 반가운 일이다.

한국가족의 여성문제

가부장제 가족문화와 여성

한국가족의 문화는 가부장제(patriarchy)로서 그 핵심은 주자가례의 규범에 근거한 유교적 관습들을 중심가치로 하여 형성된 제반 특징들이다. 예를 들면,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시가에 들어와 살게되는 제도(patrilocal residence)라든지, 부계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되는(patrilineal) 점, 조상의 봉제사가 장자, 장손 중심이라는 것, 철저한 장유유서와 남존여비, 부부유별을 강조하는 가족질서 및 통치체제 등이 있다.

물론 소위 우리가 '한국의 전통가족의 관습'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형성되기 이전, 즉, 조선 중기이전의 한국가족은 여러 면에서 달랐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와 사는 남귀여가(男歸女家)와 데릴사위 풍습이 있었으며, 재산상속은 균분제였고 여식에게도 상속권을 주었다. 또한 여아도 족보에 등재시키고 조상제사도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풍습이나 외손봉사(外孫奉祀)도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오늘날 보다도 오히려 가족제도가 유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병익, 1986).

그러한 특징들이 반드시 그 시대에 남녀가 평등하였다는 증거가 된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부계혈통의 원리가 절대화되

었으며 가부장권에 의한 여성의 삶의 통제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즉, 조선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은 유교의 원리가 양반계급의 비대와 더불어 혈연가문주의와 부합되면서 가부장권에 의한 여성의 통제는 가족문화의 원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유교국가로 가족의 혈연주의는 공통적이지만 부계, 직계의 원리가 한국에서 조금더 강한 것 같다. 중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결혼한 형제들은 모두 부모와 함께 살며 형제들에 대한 상속도 균분제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이 형제 중 후계자를 정하였지만 반드시 장남은 아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는 장남과 동거하면서 장남은 봉제사의 의무를 지고 재산의 상속분도 달랐다(이광규, 1986). 이러한 장남중심의 한국적 특수성은 물론 고부관계 등과 관련하여 한국 여성의 경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가족의 가부장제는 남성가장에게 가족을 대표하는 권리, 조상의 제사를 집행하고 가족구성원을 감독, 통솔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여성에 의해 크게 거부되지 않았던 것은 모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고병익(198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가족에서 여성은 서열의 하위에서 남성가장의 감독과 통제를 받았지만 효의 개념에 한해서 만큼은 거의 부(父)권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 모(母)권의 중시는 시집간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특히 아들을 통하여, 남편의 친족집단에 편입할 수 있게 하며 '자궁가족'(Wolf, 1972)의 형성을 통한 권력의 기반형성을 가능케하면서 가부장제로 인한 갈등을 감내하도록 작용하였고 분석된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물결에 의해 공장이 생산을 담당하고 가정은 소비를 담당하는 곳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감에 따라 자본주의적 변형을 겪게 되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 여성은 무임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이다. 조혜정(1988)은 그 변형의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하고 있

다. 첫째는 무조건 남존여비를 주장하기 보다는 남녀의 심리적 차이(생물학적 차이 포함)를 강조함으로써 남자는 경제적 역할을, 여자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는 성역할 분리를 정당화 하였다. 둘째로 “성공하는 남편을 둔 사랑받는 아내, 성취하는 자식을 둔 자랑스러운 엄마”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된 것이다.

변형된 한국적 가부장제가 이상화 하고 있는, 자식과 남편의 성공 및 출세를 위해 헌신하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가족주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족의 기능 중 특히 가문이나 조손(祖孫)을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며, 가족을 개인 위에 두어 가족의 이익에 상반되는 개인의 욕구의 희생을 강조하였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결국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유지와 여성의 모성성이 강조되고 여성의 희생이 당연시 되어 온 사실이 관계 있음은 자명하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출생성비이다. 전세계적으로 남아 대 여아의 출생성비가 104 : 100인데 비하여 한국의 출생성비는 김일현(1990)의 분석에 의하면 남아 113.6 대 여아 100이며, 최근의 센서스 자료(경제기획원, 1991)에 의한 0살 영아의 성비는 남아 116 대 여아 100이다. 이 수치들은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을 보았을 경우이며 출생순위가 둘째, 셋째로 내려갈수록 남아의 비율이 여아의 비율보다 30% 이상 웃도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이러한 출생성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남아선호의 근원에는 종족(宗族, linearity)의 유지라는 동기적 요소가 있음은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아들은 대를 잇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 1985년 조사에서는 전체의 71%가 동의하였고, 1990년에는 53.1%가 동의하여 그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다. 성별로 그 변화의 폭을 보면 남성은 1985년의 75.3%에서 1990년 56.7%로, 여성은 67.6%에서 50.8%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여성개발원, 1991b).

여기서 여성과 남성의 응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실망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시가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음으로써 비로서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속에서 세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효를 극도로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윤리에서 혼인과 함께 친정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단절의 경험으로 인한 갈등을 자손 특히 남아에게 쏟음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연관시켜 해석되고 있다. 참고로, 문화인류학자인 Watson(1990)은 중국의 전통혼례의식에서는 신부가 결혼전 사흘동안 친정부모 및 형제들과 떠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애가(laments)를 부르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단절의 비애를 달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의 혼례에는 그러한 의식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싫든 좋든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여성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면 많은 여성들의 역할이 가정에 국한되어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다른 어떤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출세나 자식의 성취, 가족의 지위상승 뿐인 상황에서 제 3세계 주부의 “지위 재생산적 역할”(Papaneck, 1985)이라고 하는 계, 부동산 매매 등의 비공식적 경제활동, 자녀의 교과지도 및 의도적 교사방문 등의 교육적 역할, 제사, 친척관리 등 가족의 명망과 체면관리, 남편출세를 위한 적극적 내조, 그리고 자녀결혼성사 등에 여성들이 과잉전력을 쏟아 온 것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회의 원리’(또는 일반 상식체계)에서 비추어 보면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안채의 원리’(또는 안사람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중심가치로 하는 여성들에게는 열심히 자기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시도일 따름이다(이강자·차옥덕, 1989). 여기서 필자의 의도는 이러한 현상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처한 모순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itchell(1966)은 남성중심의 사회가 여성에게 그들이 인간조건에서는 필수적이며 근

본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 경제, 정치적 역할에서는 그들을 주변인화 하도록 여성사회화 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모순성은 양자가 서로를 정당화함으로써 저항을 막기 때문에 여성에게 치명적 손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내 지위

핵가족

지난 30여년간 한국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제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가구의 세대별 구성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2세대 가구의 비율이 67.0%(경제기획원, 19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3세대 가구가 14.4%, 4세대 가구가 0.4%에 불과하다. 또한 가구원 수를 보면 1970년에 5.2명이었던 것이 1980년에 4.6명으로, 다시 1990년 현재 평균 3.8명으로 낮아졌다(경제기획원, 1989a : 1989b).

여성과 직접 관련있는 또 다른 구조적 변화로 출산력 저하와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하여 가족형성기와 양육기가 지연, 단축되었고, 여기에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요소가 더해 탈양육기 이후의 축소완료기, 해체가 길어졌다. 출산력의 경우 1935년에는 6.2명이었던 것이 1975년에는 3.4명으로, 1988년에는 1.6명으로 낮아졌다. 여성의 초혼연령도 1966년에 22.8세였던 것이 1975년에 23.6세, 1988년에는 24.7세, 1990년에는 25.5세로 높아졌다(한국여성개발원, 1991a). 이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사회의 전문화, 기계화와 더불어 기혼여성의 가족내 삶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국의 핵가족은 서양의 핵가족과 다른 배경에서 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양에서는 공장생산에 따른 자유노동자가 출현하여 전통적 귀족사회에서 획득적 신분사회로 전환되면서 부부중심의 핵가족화가 몇세기에 걸쳐 정착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적 문화

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낭만주의적 사랑으로 이어져서 귀족계급의 도덕적 문란성에 반(反)하여 부부중심의 새로운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조혜정, 1991).

반면 우리나라의 핵가족화는 정부의 산업화정책, 농촌정책, 출산정책 등에 따라서 불과 30여년 사이에 급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마치 위에서부터 유도되어 온 인상조차도 준다. 실제로 산업화 시대의 한국의 핵가족은 노동시장을 따라 가족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통가족이 혈연중심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계층이동이 어려웠던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의 통로를 통한 계층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산업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해석되고 있다(한남제, 1986).

그러나 한국가족은 핵가족화, 소규모화 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서구 선진국의 가족형태를 닮아가고 있는 반면 내부 구조에서는 직계, 부계원리에 따른 가부장적 전통규범이 깊이 내면화 되어 있는 모순성을 갖는다. 아울러 핵가족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족구성원간의 친밀한 우애관계와 평등한 역할분담, 도덕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상호 존중의식, 경제적 독립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희(1985)는 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핵가족에서 요구되는 가족의 우애적 기능에 남편이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이 기대하는 수준의 부부-자녀중심의 가정생활이 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을 느끼며, 이러한 핵가족의 불안정성이 한국 중산층 주부의 사회참여 열망 및 종교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혼초기의 남녀가 부모세대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유아적인 행태의 상당부분이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결혼자금은 물론 주택마련 자금, 일부에서는 생활비까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현상은 핵가족화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부갈등에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현대가족의 아버지들이 성공을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직장에 매달리게 되면

서 가정내 아버지의 부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이광규, 1986). 남편이 가산권의 상당부분을 아내에게 위임하여 자녀감독 및 훈육, 가구 및 부동산의 매매문제, 집안의 경조사 참여 등을 여성이 담당하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겉으로는 여성의 가사결정권, 가정경제권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위주의 위계와 성운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한국의 가족생활은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기회를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의무의 수행과 회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적 역할에서 여성을 소외시킴으로써 여성으로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남성의 지배를 받게 한다(이광자,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산층 주부들은 '행복한 아내, 사랑받는 아내'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탓에 남편에게 철저히 의존한 삶의 행복을 가장하기에 열심이다. 그런가 하면 한 평생 자신을 누르고 희생하며 살다가 뒤늦게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장된 행복의 정체를 발견한 후 시집식구들도 남편도 모두 싫다고 별거를 원하는 여성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학이나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성평등의 이념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후 결혼, 즉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기혼여성들의 상당수는 최소한 행복을 가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념적으로 꿈꾸어 온 평등한 결혼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협조체제, 전략과 끈기가 부족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젊은 세대의 문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공지영의 소설(연극화 되기도 하였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한국의 가족은 부모세대로부터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구성원간의 정신적 유기성이 결여된 불안정한 가운데 부부간 유대가 약하고 별거, 폭력, 그리고 혼외관계 등 가족내 심리적 해체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이동원, 1988). 특히 이혼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총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보았을 때 1965년에는 3.1%였던 것이 1975년에는 5.4%, 1986년에

는 10.8%에 이르고 있다(이태영, 1989). 이혼 사유는 아직도 배우자의 부정이 높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존심이나 성격차이 등의 요인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사노동, 가족내 여성의 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일어난 가족구조의 변화, 해방이후 꾸준히 향상되어 온 여성의 교육수준, 70년대 이후 여성학이라는 학문의 보급 등으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기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특히,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른 인력수요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개편은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경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마련의 어려움, 자녀교육비와 일반적 생활비용의 증가 등으로 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부부양쪽의 수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1989년 현재 전체 취업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7%에 이르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율(46.8%)이 미혼여성의 취업율(45.6%)를 넘기 시작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1a).

산업사회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지나친 성취지향적 사회 풍토는 가정에서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며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에게 무능함과 갈등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정에 남아있는 여성들중 일부는 일찍 사회생활을 택해 이제는 웬만한 지위에 올라있는 학교동창이나 친구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지만 주부들의 재입직을 위한 통로가 제한된 탓으로 대신 가족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정신적 보상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과 관련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가사노동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이 주부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져서 주부가 거의 전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핵가족화,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주부의 일상적 가사노동이 감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정교화와 지위과시성(status de-

fining activity)이 높아져서 사실상 가사노동 시간이 산업화 이전보다 줄지 않았다(김혜경, 1984). 지위과시적 활동은 주부가 가정에서 하는 일에 가족의 지위나 고상한 취미가 반영되도록 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한 예로 가사설비 역시 효율성보다 미적 감각을 중시하여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은제품이나 크리스탈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주부의 가사노동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부들은 집안에서 그들이 담당하는 일을 보다 정교화 시킴으로서 심리적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도 있다.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은 결국 여성의 사회적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여성의 가정중심성(domesticity)을 강화한다. 손덕수(1989)는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여성의 열등한 지위의 뿌리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가지의 영향을 들었다. 첫째,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차적 의무이며 여성의 사회임금노동을 가계보조적인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을 초래하여 임금구조의 불평등을 합리화시킨다고 본다(참고로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5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여성개발원, 1991a). 둘째, 취업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중적 짐을 지게 한다. 그리고 셋째, 가사노동을 사회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봄으로써 주부의 자아인식 비하, 정체감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최근들어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정무장판(제2)실, 1994: 한국여성개발원, 1991b) 반가운 일이나 이는 한편으로 가사노동의 문제가 마치 화폐적 가치로 환산되지만 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김혜경, 1984).

연구에 의하면 주부가 취업할 때에도 전업주부의 가정보다 남편의 가사참여는 높지 않다(Douthitt, 1989). 물론 중산층 가족에서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는 가사조력인을 고용하거나 부모, 친척 등이 가사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부부가 가

사와 관련되는 역할을 공유할 기회가 상실되기도 하지만 다른 계층에서도 부인취업은 남편의 가사 참여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효재·지은희, 1988: 한국여성개발원, 1991b).

상당비율의 기혼여성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가족에서 이들의 남편들은 부인의 취업을 경제적인 면에서, 힘을 덜어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사와 양육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어서(한국여성개발원, 1991b) 여성이 취업을 하되 가사와 양육만큼은 철저히 하기 바라는 태도를 보인다. 남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경우 취업주부는 자신의 사회생활을 허락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해할 뿐 그가 가사와 양육을 나누어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의 취업활동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세도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는 전통적 성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덧붙여서 가사 및 양육과 취업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주고있다(박호강, 1980). 한 예로, 김양희(1991)에 의하면 기혼취업여성들은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데 대한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며(긍정비율 57.7%), 남편에게 소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50.7%), 남편이 집안 일을 돕지않아 화가나며(44.8%), 일이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늘 지치는 등(49.9%)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진경(1989)이 저소득층 기혼취업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이 결혼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으면서도 고정관념으로 매우 고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죄의식을 갖고있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과연 여성의 가족내 지위가 향상되었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권력의 정도는 그가 갖는 자원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이 이론을 적용할 때 주부가 취업할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소유하는 자원이 높고 사회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에 눈뜨게 되므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셈이다(조혜정, 1988). 그러나 한국가족의 경우 아직 여성취업이 가족내 합리적인 역할과 권력분담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력이 오히려 남성우위의 전통적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맺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여성들이 흔히 “돈버니까 오히려 남편에게 큰소리/잔소리 못한다”고 하는 말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교환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부인의 취업이 한국가족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방향으로의 권력구조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Rodman(1972)의 지적대로 한국과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사회규범이 개인의 자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Lee 와 Paterson(1983)도, 사회규범이 가부장제에서 평등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수정된 가부장적 문화권(modified patriarchal culture)에서는 개인의 자원이 권력과 부정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제계에서는 인력난의 해소방안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려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기혼여성 스스로도 경제여건과 의식, 참조집단(성공적인 직장여성)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원하는 바,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담의식이 극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사회심리학적 접근

앞에서는 한국가족내 여성문제를 유교적 원리의 실천규범화와 그의 중심인 가부장적 가족의식, 그리고 한국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확대된 핵가족제도의 문제,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내 역할 분담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980년대 이후 가정내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와

관련지위 설명하려는 접근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득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의 가치는 충분히 인식되지만 혹시 가족이라는 집단을 분석의 단위로 하여 여성개인에게 경험되어지는 한국가족의 현상을 여성의 위치에서 접근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분석의 차원을 대인적(對人的)인 것에 두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가족과 관련한 현상이 어떠한 미묘한 심리과정을 매개로 하고 있는지, 또 그 현상이 여성개인에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함을 주장한다.

일반적인 여성사회화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예 : 동일시, 모델링, 역할이론 등)과 연구물은 많지만 한국 가족내 불평등한 구조가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재생산 되는가를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서구의 사회심리학자들이 경제 및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문제를 공평성이론(equity theory)과 상대적 결핍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의 조망에서 다루어 온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두가지 이론은 여성과 남성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이 마땅히 받을만 하다고 믿는 대우나 권한에 대한 개념이 다른가, 만일 다르다면 다른 개념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하고자 함으로써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열망수준과 지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준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의식(sense of entitlement / deservingness)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낮은 비교기준(comparative referents)을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원인에 대한 통념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Major, 1987). 서구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의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낮은 지위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요인이 작용함에 있어 어떤 개인적 또는 대인적(interpersonal) 심리과정을 매개로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잘못 사회화(학습)된 것을 탈학습(unlearning) 시키고

바른 것을 재학습(relearning) 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심리기제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법

한국가족에서 여성이 가부장적 관습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남녀 모두의 의식과 사회제도가 함께 변화하여야 한다. 계몽을 통하여 의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식교육 및 계몽보다는 제도의 변화를 더 중시하였다. 집단간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 행위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물들은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은 근본적인 것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있는 방법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편견과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임을 보고한다. 즉, 사회의 법·제도를 바꾸는 것은 사람들에게 차별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함께 비차별적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성계에서 가족법 개정작업을 추진해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일단 개정된 내용과 실천이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족법은 1958년에 제정된 새 민법에 성문화된 것으로 상속·혼인·이혼 등에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았으며 단적으로 한국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가족내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남녀불평등을 개선하는 도구로서 법을 활용하려는 여성계의 노력에 힘입어 1989년 12월에 대폭 개정되어 199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가족법은 장남중심의 호주상속제를 장남이라도 포기할 수 있도록 호주상계제로 바꾸었지만 어쨌든 호주제도가 존치하도록 된 것과 동성동본 불혼제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약혼 및 혼인의 연령,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에 대해 여성차별적 규정을 갖는 점 등의 미진함이 있다. 민법 801조와 807조에 의하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16세에 약혼 또는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811조는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 근대적이며 성차별적인 요소가 잔재한다.

그러나, 모계와 부계의 친족범위의 통일,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신설, 이혼시 어머니도 친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신설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대 한국가족이 평등한 인간관계에 기초한 건강성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법, 세법 등 아직도 여성을 이등시민화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출발점으로 하여, 점진적이나마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대중매체, 시민사회운동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맺는 말

이상으로 한국가족의 여성문제를 가족규범, 가족구조, 가사노동의 분담문제, 가족내 여성의 지위, 그리고 법·제도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한국가족은 서양의 핵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에서의 변화가 가족내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가부장적인 규범이라는 장애요소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가족문화란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속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그 핵심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가족은 사람다운 삶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걸맞는 가족문화의 창출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들어 부성의 부재가 가족의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수험생 어머니의 어려움을 나누고 자녀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수험생 아버지의 모임', 그리고 대화를 통한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정립하자는 '가족회의를 실천하는 아버지들의 모임' 등이 생기는 것은 변화를 위한 희망을 갖게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가족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대안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다. 제시하고자 하는 모델이 너무나 이상적인 경우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다. 조혜정(1986)의 제안처럼 Durkheim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유기적 결속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평등하고 상호존중하는 질서가 전통적 서열과 남녀차별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가능해질까? 핵가족이 아직 실천의 원리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Young과 Willmott(1973)가 근대화 이후의 고도 산업사회의 상징적 가족형태로 제시하는 역할대칭가족(symmetrical family)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분명히 한국에서도 이원직업가족(dual career family)이 보편화됨에 따라 역할대칭가족은 부부가 평등을 유지하며, 부성의 표현적 역할이 개발되어 남녀의 역할이 쉽게 공유되고 상호대체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모델이 바람직하다면 그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제도가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의 견습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Oakley(1974)의 주장에는 동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규범과 후기산업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그려내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서양의 대립적 사고

문화와 달리 동양의 조화의 문화에 기반한 우리사회는 가정과 여성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본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편(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경제기획원 편(1989).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기획원 편(1989).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경제기획원 편(1991). 인구주택 총조사 속보.
고병익(1986). 현대사회와 가족-가족윤리의 새로운 정립.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제7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김양희(1991). 기혼여성의 취업, 성역할의식,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일현(1990). 한국의 출생성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주희(1985). 준거집단과 의식의 혼재. 중산층 여성과 문화지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 발표회.
김혜경(1984).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여성 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박호강(1980). 근대화와 남녀역할의 변화. 한신대 논문집. 제10집, 239-259.
손덕수(1985). 여성의 가사노동과 사회적 지위.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편, 여성문제연구, 제17집, 6-25.
이강자·차옥덕(1989).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7권, 159-179.
이광규(1986). 동아시아사회의 가족-동아시아의 산업화와 가족.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제7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이광자(1994). 한국여성의 과거와 현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여성과 한국사회.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태영(1989). 한국의 이혼율에 관한 연구Ⅱ. 한

- 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효재·지은희(1988). 한국 노동자계급가족의 생활실태. *한국사회학*, 22권, 69-97.
- 정무장관(제2)실(1994). 주부 가사노동의 소득인정기준 설정방안 모색.
- 조혜정(1986). 가족윤리-공리적 가족집단주의와 도덕적 개인주의.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제 7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조혜정(1991).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제7집.
- 한국여성개발원(1991a). 여성백서.
- 한국여성개발원(1991b).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한남제(1986). 가족제도-고부관계를 통해 본 한국 가족제도의 특징.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제 7회 사회복지 심포지엄.
- Andre, R (1981). *Homemakers: The forgotten workers*. 가정주부 (1987) 한국여성개발원.
- Douthitt, R. A.(1989). The division of labor within the home : Have gender role been changed? *Sex Roles*, Vol. 20, 693-704.
- Lee, C. R., & Paterson, R.(1983). Conjugal power and spousal resources in patriarchal cultur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4, 23-28.
- Major, B.(1987). Gender, justice, & the psychology of entitlement. In Shaver, P. & C. Hendrick(Eds.), *Sex and gender*. London : Sage Pub.
- Mitchell, J.(1966).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 *New Left Review*, 17, 11-37.
- Oakley, A.(1974). *The sociology of housework*. N. Y. : Pantheon Books.
- Papanek, H.(1985). Family status-production work : Women's contribution to class differentiation and social mobility, [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에서 재인용.]
- Rodman, H.(1972). Marit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 50-67.
- Young, M., & Willmott, P.(1973). *The symmetrical family*. NY : Pantheon Books.
- Watson, R.(1990). Dutiful daughters and loyal wives : Korean and Chinese women. *Korean studies, its cross-cultural perspectives II*. Papers of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Academy of Korean Studies.
- Wolf, M.(1972). *Women and the family in rural Taiwan*.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Feminist Perspectives on Problems Related to Women and Family

Yang-Hee Kim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is article looks into problems related to women in the patriarchal Korean family. Discussion centers arou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in terms of family norms, family structure,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r, and the Family Law. When examining the change in the status of Korean women, it becomes evident that despite certain development such as improved education levels and increased participation in society that have led to a substantial progress in the status of women in a formal sense, this progress remains to be reflected in the actual conditions surrounding women's daily life at home. This can be attributed to a certain cultural existing in our society as a whole—namely, the disparity between the formality and practice that spills over into the women's spheres as well. The author suggests a relative deprivation theory can be applied to analyze women's sense of entitlement and their use of comparative referents in interpersonal relations. This analysis would provide insights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for reproduction of women's subordination in family.